

언론 사람

인터뷰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세상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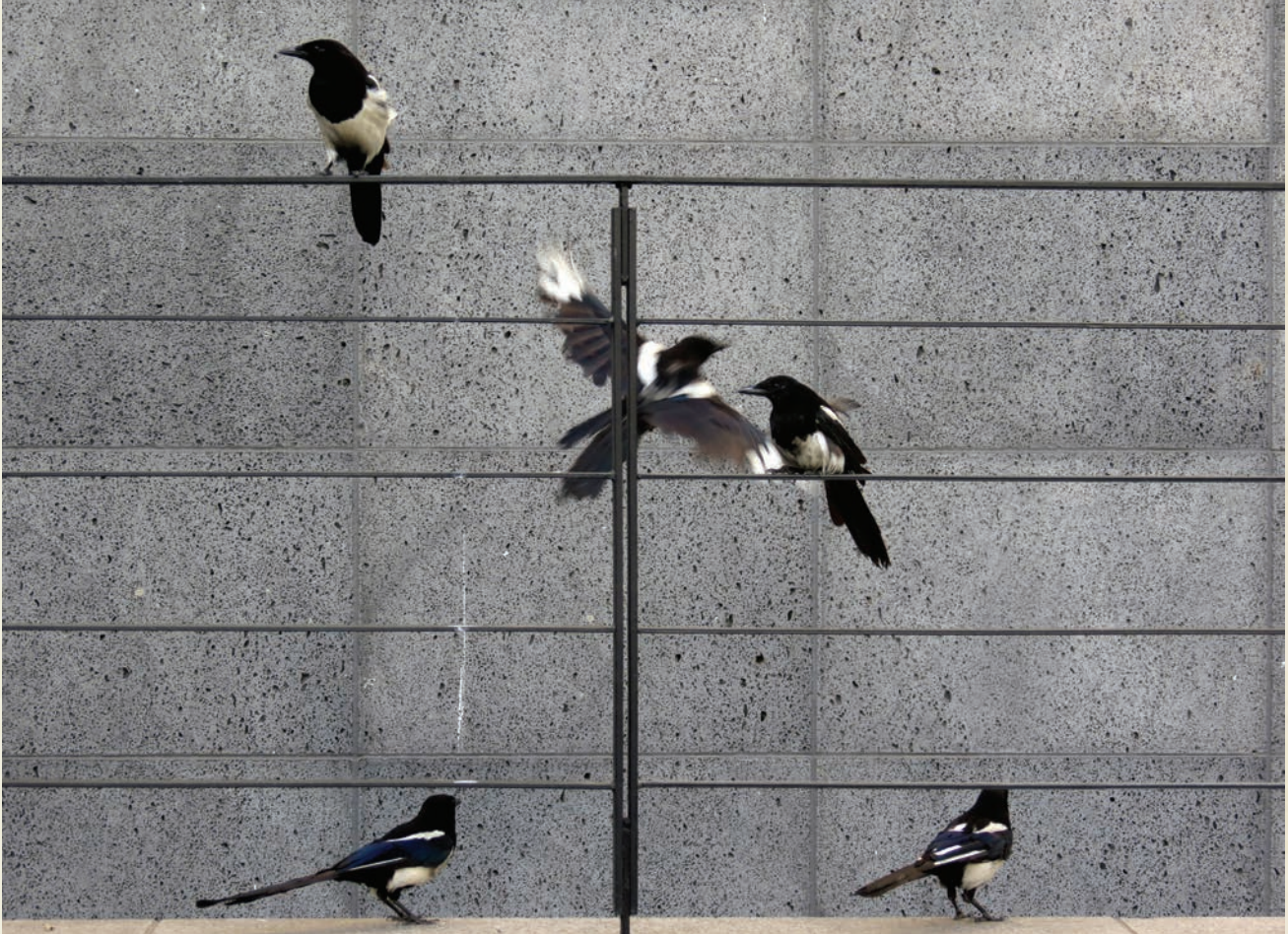
“나는 고발한다”

옛 그림과 차 한잔

화폭이 된 도자기,
싱그런 운치 일품일세

언론과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정확하게 다섯줄의 오선지가 펼쳐졌다. 이곳은 대학로 한 카페 앞의 공터이며 오선지는 쇠로 된 난간이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있었던 모양으로 동네 까치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바닥에 앉은 두 마리는 ‘도’를 짚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가운데는 ‘시’에 막 앉았다. 맨 위는 높은 ‘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2초 간격을 두고 새 악보가 그려지고 있었다. 동영상으로 찍었다면 <엘 빔보>나 <진주조개잡이>쯤 되는 멜로디가 흘러나왔을 것이다. 어느 정도 질서와 리듬이 있어 제명 따라 흥얼거리는 순간, 한 녀석이 급하게 고음에 도전하느라 마디와 마디의 경계를 돌파해버리고 말았다. 짹짹! 그러다 까마귀 될라.

CONTENTS

2017 July Vol.205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people.pac.or.kr

 pacblog.kr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발행인 양인석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7년 7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계문사 T 02-725-5216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02 클로즈업

04 인터뷰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06 미디어트렌드

처널리즘 : 어쩌다 우리 언론은 오보까지 베껴쓰게 되었나

07 언론중재위원회 NOW

보도의 공정성? 균형 그리고 사람 존중!

08 심리학브런치

불안과 눈 마주치고 대화하기

09 언론법 이모저모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10 세상읽기

“나는 고발한다”

11 언론노트

인터넷개인방송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12 옛 그림과 차 한잔

화폭이 된 도자기, 싱그런 운치 일품일세

14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웹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실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사람의 일을 묻다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석사

독일 Bonn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1997~현재)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 홍조근정훈장 수상(2017)

66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운 것은

잘 몰라서일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을 닮은, 사람다운 로봇을 만드는

장병탁 교수와 함께 인공지능이 선사할

새로운 세상의 빅픽처를 그려보자.

99



Q | 지난 5월 하순, 인간계 바둑의 최고수 커제와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죠. 결과는 알파고의 완승이었어요. 경기 후 커제가 ‘알파고는 바둑의 신과 같았다’고 말했다는데요, 인공지능은 정말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인가요?

A | 바둑으로만 보면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연함이 없는 인공지능은 맥락을 넘나들며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없고, 저와 **연륜** **사람**의 인터뷰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말이죠.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유연하게 세상을 학습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Q |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A |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0년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부여한 만큼의 능력만 가질 수 있었어요. 당시에 알파고를 만들었다면 고수들이 책을 보며 바둑을 연구하고,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했겠죠. 물론 사람이 무수히 많은 바둑의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생각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최근 20~30년 사이에 ‘머신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학습해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 내는 귀납법적 사고를 합니다. 알파고처럼 무수한 바둑의 ‘경우의 수’를

저장하고 이를 학습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수를 추론해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빠르고 정확한 계산능력, 무한한 기억력에 학습능력까지 결합되어 바둑의 고수보다 더 많은 수를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에 의한 지식, 즉 직관은 사람이 잘하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통해 기계 역시 직관을 갖게 되어 사람보다 잘하는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머신러닝은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Q | 커제와의 대국 이후, 알파고를 만든 ‘허사비스’는 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알파고는 이제 AGI다’ 인공지능과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A | 사람은 유연해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와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하고, 대화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물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 걸쳐 두루 잘 아는 ‘제너럴리스트’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한 분야를 잘 아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살짝만 바뀌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AGI는 한 마디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꿈이죠.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 이전에 이러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하나의 알고리즘에 49가지의 게임을 반복적으로 학습시켰더니 29가지의 게임을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하나인데 보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듯 AGI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일을 하는 ‘범용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Q | 교수님께서 가사도우미 로봇을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의료 등의 분야가 아닌 가사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 인공지능의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스페셜리스트’라면, 제가 개발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로봇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도 돌보고, 공부도 가르치는 ‘제너럴리스트’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쉴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일상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정형화된 패턴이 없는데 이것을 기계한테 가르치려니 굉장히 어렵겠죠? 가만히 보니깐 사람은 특별한 것도, 잘하는 것도 없지만 또 못하는 것도 없어요. 가장 사람다운 모습인데, 이 사람다운 유연성이 아직 기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인간이 개입해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데이터화하여 로봇에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엄마를 복제하여 엄마를 대체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일관된 면도 있지만 즉흥적인 면도 많아요. 이러한 양면성을 극복하고 아이와 엄마 사이의 교감을 흉내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매일 고민합니다.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험이지만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Q |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정보는 결국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의지나 동기, 욕구의 영역 아닌가요? 그런데 욕구나 동기도 인공지능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A |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언젠가는 출현(emerge)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계가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기계가 진짜 의지를 가졌냐 하는 문제는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보면 무조건 따라가도록 기계를 설계해 놓으면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알파고가 과연 의지를 갖고 새로운 바둑의 수를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파고가 상당한 의도를 갖고 새로운 수를 만들어 냈다고 해석하는 거죠.

Q | 인공지능에 대한 언론보도의 태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A | 대부분 영화 <터미네이터> 속 ‘스카이넷’을 상상하는데 인공지능이 잘 하는 것만 부각되어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기계를 연구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인공지능이 잘하는 분야는 인공지능에 위임하고 사람은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면 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특기입니다. 특정 이슈와 관련된 전 세계의 기사를 요약해서 5초 내에 배포하는 것은 인공지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자들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정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정교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사람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대기시간은 무척 긴데 진료시간은 너무 짧아

허무할 때가 있어요. 봐야 할 환자가 많아서 그럴겠죠. 간단한 질병은 인공지능이 진료하고 처방한다면 의사는 중환자를 더욱 꼼꼼히 진료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Q | 현재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맞아야 하는 것일까요?

A | 컴퓨터가 처음 등장하면서 직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라진 직업도 있었지만 IT라는 산업이 생겨났고 덕분에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거부하기보다는 준비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변화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에 아마존의 ‘에코’, SK텔레콤의 ‘누구’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기계가 생겨난 거죠. 더 나아가면 로봇이 될 것입니다. 1960년대 텔레비전, 1970년대 세탁기가 한국에 등장하고 상용화되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산업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을 통해 앞서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명확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제조업 분야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장의 물리적인 장치를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복제 기술을 통해 실제 기계의 상태나 오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융합, 디지털과 물리적인 실체의 만남,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처널리즘(churnalism): 어쩌다 우리 언론은 오보까지 베껴쓰게 되었나

churnalism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 존중과 불신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존중의 근거라고 하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이 없다면 권력 감시나 여론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구석구석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기자들은 우리 곁에 의외로 많다. 불신의 기저에는 무엇보다 시시때때로 나오는 오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오보를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던 우리 언론은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전대미문의 오보를 거의 모든 언론사가 줄줄이 쏟아내면서 ‘기레기’라는 가슴 아픈 호칭을 얻었다. 당시에 기자들은 통한의 성찰을 했지만, 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른바 ‘처널리즘(churnalism)’이라 일컬어지는 언론계의 관행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네이버에 ‘처널리즘’을 검색해보면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뜻의 ‘천 아웃’(churn out)과 저널리즘(journalism)이 합쳐진 신조어로, 비슷한 뉴스를 대량 생산하는 언론의 일그러진 모습을 비판하는 말”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언론의 집단적 베껴쓰기 관행’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처널리즘’의 유래가 영어인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영국 언론이 보도하는 기사 중 약 80%가 ‘처널리즘’에서 자유롭게 못하며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단독성 기사’는 12%에 불과하다고 하니,¹⁾ 이쯤 되면 우리보다 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무엇을 베껴쓰나? 첫째, 다른 언론사의 기사, 둘째, 보도자료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베껴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자들의 준거집단이 주변 동료 즉 기자들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도할지, 얼마나 중요하게 보도할지 등 아이টে를 선정하고 뉴스 가치를 판단할 때 다른 언론사의 눈치를 살피고 비슷하게 가려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 물론 현장에 가지 않는 기자들의 게으름도 크다. 요즘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재치만점 ‘언론 번역기’는 “추가취재 결과”를 “연합뉴스를 뒤진 결과”로 ‘번역’하고 있다. 줄줄이 같은 오보가 나는 상황은 그래서 생겨난다.

그러나 기자들이 현장에 갈 수 없는 열악한 취재환경과 인력구조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마감시간 안에 어떻게든 기사를 만들어내려

면 때로는 오보의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 이러한 환경과 구조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공들여 쓴 좋은 기사가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니, 실시간 검색어를 넣어 급조한 밀어내기식 어뷰징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기사의 질보다 양이 관건이 된 것이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베껴쓰는 데에는 낙중, 이른바 ‘물 먹기’를 피하려는 심리도 작용한다. 기자들이 특종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낙중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특종이 취재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장치라면 낙중은 무능력을 드러내는 지름길로 인식된다. 그래서 기자들은 특종을 못하더라도 낙중을 피하고자 부지런히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실시간으로’ 베껴쓴다.

보도자료 베껴쓰기는 ‘출입처’라는 관행을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자들은 관공서나 대기업 등 담당 출입처에 출근하여 홍보 담당자가 쓴 보도자료를 일상적으로 공급받는다. 보도자료는 기자들이 손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끈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출입처 중 상당수가 광고주다. 기사를 실어야 광고가 들어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언론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보도자료가 홍보성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그들이 알리고 싶은 것과 수용자가 알아야 할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언론사는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추가취재를 해서 독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기사를 써야 하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보도자료 베껴쓰기는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데에서 심각성은 증폭된다.

출입처 위주의 보도 관행을 의미하는 출입처 중심주의는 보도의 양이나 관점의 편향뿐 아니라 언론의 권력화 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민의 눈높이가 아닌 출입처의 ‘높은 사람’을 위한 기사를 양산하면서 언론과 정치권력, 언론과 기업 간의 연대는 굳건해진다. 이렇게 ‘처널리즘’은 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감’에 올라오는 기사 대신 공들인 좋은 기사를 선택하는 수용자의 작은 변화가 ‘처널리즘’을 바로잡을 수 있다.

1) 이승환 (2015. 11. 16). ‘처널리즘’의 시대, 직접 쓴 기사는 12% 뿐. <미디어오늘>.



보도의 공정성? 균형 그리고 사람 존중!

제19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마치며

3개월 전,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던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공정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선거기사심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뽑는 면접에서 당연히 나올법한 질문이지만, 제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언론 관련 일을 해오면서 늘 고민했지만 쉽사리 풀리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확신이 없었던 저는 당황했고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언론인으로서 공정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배움과 경험이 간절해졌습니다.

호기심을 안고 시작한 선거기사심의 업무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거기사심의는 선거일을 기점으로 법이 정한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한시적 업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심의원이 선거기사심의기준 내지 관련 규칙을 바탕으로 문제가 될 만한 보도를 선별합니다. 그 다음 기사심의팀 회의에서 선별된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9명으로 꾸려진 심의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기사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주의·권고 등의 결정을 언론사에 내립니다.

각 심의원은 약 100개의 지면 매체를 분담해 매일매일 쏟아지는 선거기사를 살핍니다. 하루, 이틀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같은 사실도 매체마다 다르게 해석한 기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칼럼은 기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담겨있기도 했고 감춰진 의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감춰진 의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것, 언론이 독자와 공감의 장을 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제 문제 있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기사심의 기준에 명시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심의했는데, 이번 선거기사들은 과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속해서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기사나 반대로 특정 후보를 과하게 폄하하는 기사 등은 예전에도 자주 있었던 위반 형태였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언론사의 자체 검열을 통해 형평성을 갖춘 기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선거보도의 행태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님이 새로 선출되었고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의 기간 동안 저 역시 변한 것이 있다면 ‘언론의 공정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사람이 만드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출근 언론은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공정하기 어렵고, 공정성 역시 정의할 수 없다고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함께 언론을 바라보니, 공정성이란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무한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사람을 우선에 두고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공정성이 아닐까 선거기사심의의를 하며 느꼈습니다.

내년 이맘때 치러질 일곱 번째 지방선거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과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며 올바른 선거보도를 통해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안과 눈 마주치고 대화하기



고통을 느끼면 당연히 피하고 싶습니다. 손에 뜨거운 것이 닿으면 피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눈을 오래 마주치기 어렵고, 지겨운 강의를 들을 때는 저절로 몸을 꼼지락거리게 됩니다.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황발작이 자주 오는 장소는 피하고, 손에 이물질이 묻은 것 같을 때는 끊임없이 손을 씻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풀을 뜯다가도 주위를 둘러보고, 아기 새를 위한 둥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불안과 초조를 느낄 때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이 ‘내가 왜 이러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만 반복한다면 불안과 초조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라는 말은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나 자신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을 달래는 방법은 아이를 대할 때와 같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너도 대체 왜 그래?”라고 말한다면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불안하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이유도 모르게 그냥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이나 피로가 오래 쌓여왔다면 불안한 까닭을 바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된 스트레스가 원인인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원인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겪는 데에는 감정을 피하는 습관도 한몫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일단 피하고 보는 습관이 있는 것이지요.

불안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하려고 하면 더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부터 1분간 분홍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분홍코끼리가 자꾸 떠오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홍코끼리조차 펼쳐 내려고 하면 자꾸 떠오르는데 불안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불안의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쫓기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내가 지금 왜 불안을 느끼는지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불안을 느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구절절 글로 써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밝혀낸 불안의 원인은 주로 예전에 힘들었던 일이 떠올랐거나, 싫은 사람을 봐야만 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들고 뿌연 감정은 또렷한 생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불안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미치거나 쓰러질 것 같다고요? 물론 심한 불안 상태에서는 마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죽음이나 미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극심한 불안에 따라오는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불안은 곧 가라앉습니다. 억지로 누르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불안이라는 감정과 신체적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불안을 훨씬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에 대한 불안’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요즘 흔한 풍경 하나. 식당에서 제멋대로인 아이를 짊어 준 부모는 어찌지 못한다. 스마트폰을 그 손에 쥐어 준 후에야 아이는 잠잠해진다. 흔한 풍경 둘. 자식에 찢찢매는 부모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어른들. 이 분들 눈에 아이를 다잡지 못하는 젊은 부모는 참 못났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어려워해야 옳고 부모가 자식을 어려워하면 틀린 것인가.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면 차라리 강자가 하는 것이 낫다. 적어도 약자는 강자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약자의 희생과 양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다.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 있다.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최근 한 도시에서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 이렇게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세 식구가 한 방에 나란히 누워 숨졌다고 한다. 방에서 발견

된 타다 만 연탄, 죽은 이들이 남긴 유서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이 슬픈 사건은 '○○서 생활고 일가족 3명 동반자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로 추정된다. 옛날 기사 검색을 해보면, 1967년 한 중앙일간지 사회면에 '一家 동반自殺企圖' '子女동반自殺기도' '家長, 두 아들과 同伴自殺' 제하의 기사들이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의 역사가 최소 50년은 되는 셈이다.

모든 자살이 비극이나 흔히 '일가족 동반자살'로 불리는 현상은 더더욱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녀와 함께 죽음에 뛰어드는 부모의 심리에는 자식을 자기 소유로 보는 사고가 깔려있다고 한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죽었다고 해서 '동반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타당할까?

습관적으로 '동반자살'이라 명명하고 있는 그 참혹한 상황을 상상해보면, 대체로 부모가 자녀를 먼저 죽이고 그다음 단계로 자신도 죽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살을 감행하도록 혹은 자살에 참여하도록 먼저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행동은 냉정하게 말해서, '살인'에 준하는 행위다.

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250조 이하에는 살인에 준하는 두 가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촉탁살인죄'(제252조 제1항)와 '자살관여죄'(제252조 제2항)가 그것이다. '촉탁에 의한 살인'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주는 것이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니 죄가 안 될까? 법은 '촉탁살인죄'로 처벌한다. 자살관여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자살은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관여는 범죄다. 촉탁살인죄와 똑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그래서 촉탁살인죄와 자살관여죄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사에서 '일가족 동반자살'이라고 아무렇게도 표현했던 그 상황들은 법적으로 '촉탁살인'이든지 '자살관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영미권의 언론에서는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filicide', 즉 '자녀살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죽이거나 죽게 만드는 이 행동은 자살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서는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자살을 미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살이 미화의 대상이 아니라면, 살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자녀살해'를 '동반자살'이라 더 이상 미화하지 말자.

※ 이 글은 지난 6월 1일 인천에서 개최된 <생명존중을 위한 저널리즘 세미나>에서 나경세 인천자살예방센터장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했음을 밝힙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나는 고발한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수갑을 찼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그의 딸이 잡혀 왔을 때, 강골의 어머니는 딸을 선처해 달라며 오열했습니다. 딸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은 두 살배기 아들 걱정엔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딸은 그의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눈물은 위로 솟지 못하고 아래로 흘렸습니다. 조사를 받던 백발의 어머니에게 곰탕 한 그릇이 배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문득, 제 어머니에게 곰탕 한 그릇을 드시게 할 수만 있다면 호랑이 눈썹이라도 뽀고 싶어졌습니다. 매일 졸라는 침묵하던 당대의 비겁한 지식인을 만천하에 고발했습니다. 그의 글투를 빌려 와 제 어머니를 이 글의 범정에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어머니를 ‘아동노동 강제죄’로 고발합니다. 그는 다섯 살 쯤의 아들에게 모판의 모를 뽑으라 했지요. 못줄을 잡게 하고 벼가 자란 논이 옷자란 피를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벼를 베어 벋단을 아들의 작은 지게에 얹었습니다. 어둑해진 논두렁길을 걸을 때 노래를 강제했습니다. 집으로 오다가 더러, 사람의 밥조차 귀하던 그때 소의 밥을 벌어가자며 당신의 망태기를 들게 했습니다. 키보다 더 큰 마당 쓸기 빗자루가 건네지는 것을 흠족히 바라보며 아들의 노동을 방조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권리 비행사죄’로 고발합니다. 그는 마땅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햇빛 한 줄기가 차지게 들어오는 창문의 차 한 잔을 평화롭게 주문할 권리를, 틀어진 틀니를 단장해서 잘 익은 간장게장 한 접시를 찬찬히 발라먹을 권리를, 시주함에 시주할 시춧돈이 부족하다며 아들의 지갑을 장난삼아 빼앗아 볼 작은 권리마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기리한 환의를 벗고 잠자리 날개 같은 옷 한 벌을 맞추어 입을 권리를, 한 뼉 병상의 오랜 칩거를 털고 제 마당 밭듯 삼면의 바닷길을 유람할 권리를, 목소리 굵어진 아들의 등에 업혀 어릴 적 함께 부르던 그 노래를 들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숨을 거두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동노동을 강제하였다는 죄를 어머니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모를 뽑기삼아 뽑겠다며 모판을 어질러놓은 장난꾸러기 아들을, 모내는 논이 물놀이가 탐이나 못줄 사이로 첨벙첨벙 출몰하던 아들을, 길진 잡초 대신 연한 벼 포기를 작살내던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그저 빙긋이 웃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두어 줌에 불과한 공갈 짐을 아들 지게에 지워주고 큰 산을 일깨우듯 우렁찬 소리로 밀어 일으켰습니다. 뒤를 받쳐준 어머니의 영차 소리에 아들의 키도 자라고 마음도 여물었습니다. 등 밀어주던 어머니의 손 끝 힘이 어깨에 남아 그라운 잔숨을 훌쩍이고 있거늘, 어찌 아동 노동을 강제하였다 하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한 행위를 두고 ‘정신적 자살’이라고 한대지요. 시대의 질곡을 이고 지고 달려온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과연 정신의 자살 운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머니의 권리행사 포기를 은근히 협박하고 강요했지요. 밥을 벌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벌어진 밥의 양이 나누어 먹기에 충분치 않다며 어머니의 권리행사를 원천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그 렐싼 구호는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해야 한다’는 아들의 비정한 욕망을 포장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어머니의 권리행사는 교묘하게 ‘정신적 타살’을 당했습니다.

곰탕 한 그릇이라도 배달해 드릴 터무니없는 기회를 얻어 보려고 감히 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내도 어머니를 처벌할 죄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 어머니를 무고한 죄로, 어머니의 권리행사를 정신적으로 타살한 죄책을 물어 부디 저를 이 법정에서 세워주십시오. 혹시 아들을 또 감싸주시러 맹목의 맨발로 달려오시는 어머니를 꿈결로나마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삼십 년 전 최루탄에 아들을 잃은 열사의 어머니는 그 서른 해의 눈물이 끼니마다 밥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혐의자들의 눈물과 부정한 권력에 항거하다 희생된 자식의 어머니들이 안으로 삼켜 온 눈물이 같다 할 수 없겠지요. 어머니를 여의고 몇 끼니 만에 눈물이 말라버린 아들입니다. 어느 외진 모퉁이 허름한 밥집일지라도 어머니께 곰탕 한 그릇 대접하고 있을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럽고 부러운 박수를 보냅니다.



인터넷개인방송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K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겨레TV에서 제공하는 <김여준의 파파이스>에서 K주식회사를 최대민의 비자금을 은닉한 회사로 소개하여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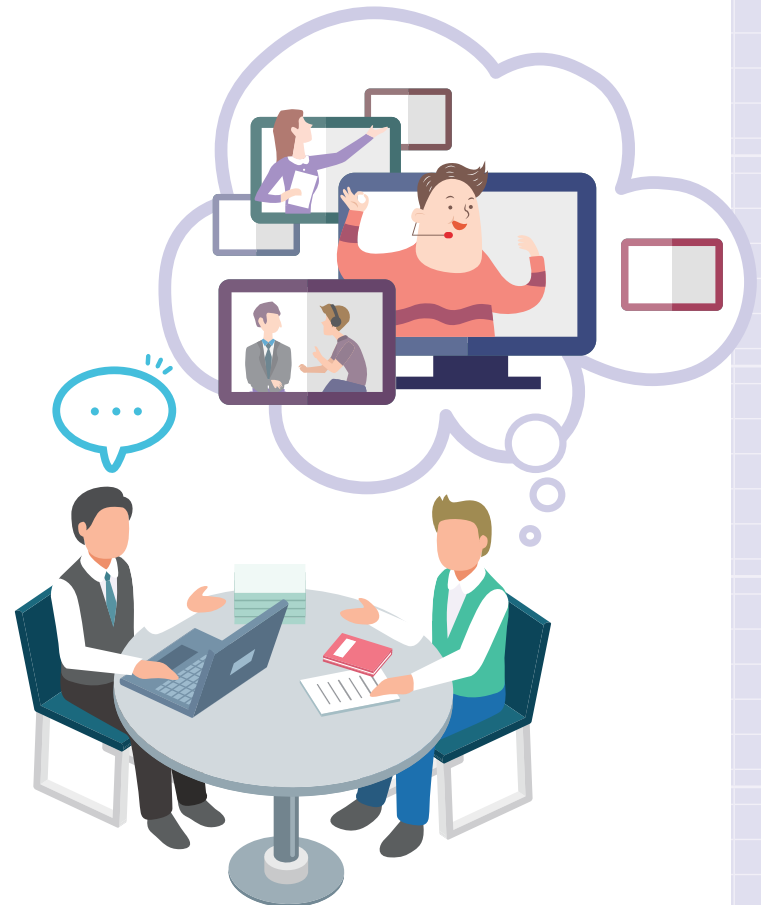
최근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유튜브, 아프리카tv와 같은 플랫폼 업체의 성장으로 <김여준의 파파이스>를 비롯한 신생 뉴스서비스가 기존의 언론 매체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생 뉴스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뉴스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율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개인방송'의 개념을 짚어보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방송진행자(이른바 BJ)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하여 불특정다수가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인터넷개인방송'이 현행 언론중재법 상 조정대상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우선 인터넷개인방송은 방송법의 적용 대상인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통신수단의 기술적 특징 때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IPTV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위원회의 조정대상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개인방송에 의한 정보 전달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인격권과 충돌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터넷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그 한계가 설정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를 정보통신망법 소정의 '이용자'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취재 및 편집 인력에 관한 요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으므로(2015헌마1206), 취재 및 편집 인력이 1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내용 측면에서 정치·사회 등에 관한 논평이나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고 있고, 주간 단위로 30/100 이상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방식



이든 다운로드 방식이든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간행되고 있다면, 일용 '인터넷신문'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개인방송 중에서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언론사가 인터넷개인방송을 운영하고 있다면 조정대상 매체를 인터넷신문사로 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위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조정심리기일 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신청이 취하되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파급력과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피해 구제가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화폭이 된 도자기, 싱그런 윤치 일품일세

우리 선조들이 남긴 도자기 중에는 멋진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들이 많습니다. 도자기 자체도 명품이지만 그 위에 그려진 그림도 명품인 예가 적지 않지요. 그런 도자기들은 대부분 궁궐에서 쓰던 것들로, 그림은 도화서 화원들이 그려 넣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실화가들의 솜씨인 거죠. 이를테면 용이 다이내믹하게 포효하는 그림이라든가, 산과 나무, 새와 꽃이 근사하게 어우러진 그림들 말입니다.

물론 관요에서 만든 왕실도자기의 그림만 빼어난 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도공들이 빚고, 구워 만든 도자기 중에도 기막히게 근사한 그림을 품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왕실화가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의외의 걸작인 셈이지요. 이는 아마도 아무런 욕심 없이, 도자기와 온전히 하나가 돼 작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자기는 자고로 형태와 빛깔, 표면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태와 빛깔이 빼어나다 할지라도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이 시원찮으면 명품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옛 도자기 중 이 모든 걸 갖춘 걸작을 살펴볼까요. 우선 호림박물관의 〈백자청화 매죽문호〉(국보 222호)를 감상하지요. 조선 초기 백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 항아리는 담백하면서도 격조 높은 그림이 압권입니다. 호림박물관은 도자기 컬렉션에 있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에 비견될 정도로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 백자는 호림의 국보와 보물 도자기 중에서도 최고 걸작입니다. 호림의 ‘얼굴’이지요.

〈백자청화 매죽문호〉는 입은 좁고 야트막한데, 몸체는 풍만합니다. 보주형(寶珠形) 꼭지가 달린 뚜껑 아래와 하단에는 국화 꽃잎을 연속무늬로 구성한 국관문대(菊瓣文帶)를 가지런히 그려 넣었네

백자청화접시 6점. 조선 19세기. 사진 서울옥션





백자청화 매죽문호, 조선 15세기, 국보222호, 호림박물관



백자 철화 끈무늬병, 조선 16세기, 보물 1060호, 국립중앙박물관



분청사기철화 모란문 장군, 조선 15-16세기, 보물 1387호, Leeum

요, 중앙부의 매화와 대나무 그림이 이 백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백을 적당히 주어 싱그러운 데다, 청화안료의 농담을 달리해가며 매화 줄기와 꽃잎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입니다.

이번에는 백자연적 속 산수화를 살펴볼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자 소상팔경무늬 연적〉은 팔각 연적 각 면(面)에 중국의 천하 절경이 그려졌습니다. 소상팔경(瀟湘八景)은 중국 후난성(湖南省) 동팅호(洞庭湖) 일대의 아름다운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부터 소상팔경은 유명했고, 이후 수백 년에 걸쳐 끊임 없이 시(詩)로, 그림으로 다뤄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백자의 그림 소재로까지 확산될 정도였지요. 이 연적은 그 절경을 작은 사각 면에 간략하게 그려 넣은 솜씨가 범상치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보물 도자기를 한 점 더 볼까요? 〈백자철화 끈무늬 병〉이라는 이름의 이 매병은 풍만한 가운데 곡선미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선으로만 이뤄진 그림이 일품입니다. 일종의 선 드로잉인 셈이지요. 매병의 잘록한 목에 한 가닥 끈을 휘감은 다음, 사선으로 길게 늘어뜨려 둥글게 말면서 마무리한 표현은 그저 감탄사를 연발케 합니다. 당당하면서도 절제된 필치는 장인의 숙련된 경지를 유감없이 드러내는데요, 도자공예의 차원을 뛰어넘는 궁극의 경지라 하겠습니다. 망설임 없

이 힘차게 그어 내린 끈 무늬는 감상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혹자는 이를 ‘넥타이를 맨 조선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움은 분청사기 명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청사기 철화모란문 장군〉은 대표작의 하나입니다. 술이나 물을 담아 운반하던 장군병은 그 형태가 특이한데요, 호방한 그림까지 더해져 더욱 대담하고 시원스럽습니다. 활짝 핀 모란과 잎사귀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도공의 경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여섯 점의 백자 접시를 살펴보지요. 지름 16cm 안팎의 조선 19세기 청화접시를 한 컬렉터가 수집했습니다. 그중 팔각접시와 연화당초문접시는 조선 청화 백자 컬렉터로 유명한 일본 오마타 후쿠이치로가 소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섯 점의 접시에는 각각 운룡, 운학, 괴석, 꿩, 연화당초, 잉어가 빼어난 필치로 그려져 있네요. 모두 정제된 백토에 청화발색도 또렷하고 연대 또한 엇비슷해 제대로 된 조합을 이뤘습니다.

우리로부터 도자기 문화를 전수받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분청사기, 백자를 무척이나 좋아했지요. 저들은 그 문화를 지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현대의 생활 속에서 널리 아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강국은 우리였는데 말이지요. 아름다운 우리 옛 도자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COMMISSIONERS ▶▶▶ 위원동정



황용석 위원,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

황용석 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6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황 위원은 토론을 맡아 포털의 검색어 제언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 규제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창호 위원,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회장 선출

오창호 위원(부산중재부,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6월 22일 부경대 동원정보관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주정민 위원, <13회 미디어리더스 포럼> 토론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 위원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다양성 제고,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완수 위원, 미국언론학회 최우수논문 선정

이완수 위원(경남중재부,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논문 '사회자본 재탐색 : 한국 일간신문 인물면이 사회 파워 엘리트의 사회자본 구축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언론학회(AEJMC)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위원과 김찬석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공동 저술한 위 논문은 오는 8월 1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NEWS ▶▶▶ 위원회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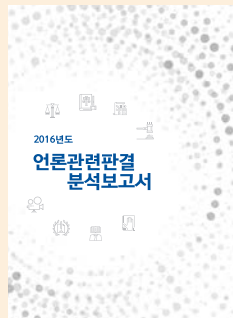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가사심의위원회 활동 종료

6월 8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사심의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80여 일간 운영된 이번 선심위는 자체심의 안건 9건 및 시정요구심의 안건 1건 등 총 10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자체심의 결과, 위반유형별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건, '광고 제한' 위반 3건,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 1건을 의결하였으며, 제재유형별로는 경고 2건, 주의 3건, 권고 4건을 의결하였다. 매체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에 대하여 2건, 지역일간지에 대하여 4건, 종합주간지에 대하여 3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신청한 시정요구 1건에 대해서는 경고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가 6월 30일 발간됐다. 보고서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에 대한 통계분석과 주요 판결 29건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1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해단식



6월 26일 제1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이 해단식을 갖고 지난 4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은 지난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며 수료증 수여, 우수기자 및 우수조 포상, 단장의 소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광주사무소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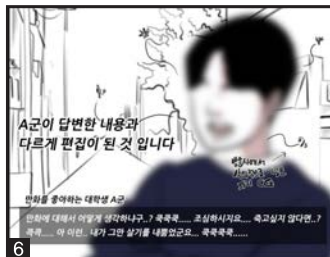
광주사무소가 6월 28일부터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새 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치평동) 5층이다. 062)676-0360~1

제1회 웹툰 공모전 수상작



그것이 알고싶어

언론보도피해, 언론중재위원회의 해결
글/그림 김영한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발간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분산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콘텐츠의 전파 경로 및 뉴스이용에 관한 연구
양승찬

뉴스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미디어 관련 법제 개선방안
-신문법을 중심으로-
황성기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장다영

온라인상의 부정적 의사표현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획행동, 자기결정성, 온라인 규범인식을 중심으로-
우형진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양재규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02) 397-3042